

P97

신령버섯(*Agaricus blazei*)의 괴균병 방제를 위한 그 방제법에 대한 연구

정경식 · 이재윤¹ · 임학섭² · 김지은 · 서민정 · 최영현³ · 주우홍⁴ · 정경태 · 정영기

동의대학교 생명응용과학과, ¹청운농산, ²(주)천년약속,
³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, ⁴창원대학교 생물학과

신령버섯(*Agaricus blazei*)은 양송이 버섯(*Agaricus bisporus*)류로서, 식용버섯중 항암효과가 아주 뛰어난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 항암효과가 널리 알려진 이후로 여러형태의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상품화되고 있다. 특히 일본에서는 어떤 약용버섯보다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건강식품 산업과 의약산업에도 주요한 재료로 각광 받고 있는 버섯중의 하나로서,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수출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재배방법은 양송이 재배법과 유사하고,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의 양송이 재배 농가중 상당수가 신령버섯을 재배하고 있다.

괴균병(False truffle)은 병원체인 *Diehliomyces microsporus*에 의해 양송이 버섯류에 특이적으로 발병된다. 그러므로 양송이류의 일종인 신령버섯의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*Agaricus* 괴균병의 피해는 양송이 피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농가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잡고 있다. 이 괴균병의 발생률은 약 30%로 이로인한 폐농사태도 속출하고 있다. 현재까지 괴균병의 방제에는 몇가지 약제나 무기물첨가 방식 등이 있으나 거의 실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본 실험에서 농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서 괴균병은 억제하고 신령버섯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않는 유효 물질을 탐색하였다. 그 결과 Sodium phosphate dibasic (0.4%)와 Potassium phosphate dibasic (1%)가 각각 첨가된 배지에서 괴균병 방제효과가 탁월하였고, 두가지 물질을 각각 0.1%씩 혼합 사용한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. 이 두가지 물질은 농가에서 손쉽게 싼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괴균병 방제물질로 확인되어 신령버섯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실험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.